

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2차)

■ 개최일자 : 2017년 1월 20일(금) 14:00 ~ 15:00

■ 개최장소 : 기획처장실

■ 참석위원

구분	위원	간사	배석자
참석	배종향, 문성룡, 김규수, 김성구, 박헌재, 김정환, 최원준, 유희승, 김현민	이윤원	정종선, 양현호, 노주현
불참			

■ 회의 안건

가. 2016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(안) 심의

나. 2017학년도 본예산(안) 심의(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)

■ 회의내용

- 위원장 : 성원을 확인하고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함.
- 김정환위원 : 지난 회의에 교부한 2016학년도 2차 추경예산(안) 및 2017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요청함.
- 최원준위원 :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학생지원경비에 대한 내역과 전화기 구매에 대한 소모품 지출 내역을 요청하며, 잠시 정회를 제안함.
- 위원장 : 정회후 회의 속개를 진행함.
- 예산담당관 : 학생위원이 요청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함.
- 위원장 :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 지출처리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 요청함.
- 최원준위원 : 2017학년도에 학생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함.
- 김규수위원 : 예산은 학교 운영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생지원만을 증액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재정 상황에 맞춰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김성구위원 : 학교의 재정상황에 제일 민감한 적립금 인출에 대한 설명을 예산부처장에게 요청함.
- 예산부처장 : 학교 예산의 규모와 대규모 건축사업 등 차후 진행되는 사업을 연계하여, 이월금과 적립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함.

- 위원장 : 학교 주요 정책사업들과 대단위 건축사업인 의과대학 및 프라임관 신축에 대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덧붙여 설명함.
- 박헌재위원 : 2013년부터 진행한 총액예산제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질문함.
- 예산부처장 :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절감예산 누적액수가 200억원 규모이며, 모든 구성원들의 인건비 동결과 희망퇴직 시행으로 자구 노력을 진행하였음.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 및 적립금 인출요인 최소화를 통해 효과성을 설명함.
- 최원준위원 : 프라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함.
- 김성구위원 : 프라임사업은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, 2016-2차 추경예산(안) 및 2017학년도 본예산(안)에 포함 되어 있음을 설명함.
- 최원준위원 : 프라임사업에 대한 예산 상세 내역서 및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학생지원경비, 연구비, 실험실습비자료를 요청함.
- 위원장 : 프라임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신시 유출방지를 당부함.
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접수 후 23일(월) 오후 2시에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할 것을 결정함

2015. 1. 20

위원장 배종향



위 원

문성룡



위 원 김규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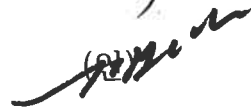


위 원

김성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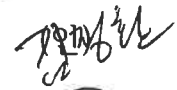


위 원 박헌재




위 원

김정환



위 원 최원준



위 원

유희승



위 원 김현민

